

중국과 일본의 교류 (생필품 무역)



당인주거지 광장에서의 거래도 (“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”의 일부), 작가 미상, 에도시대 후기(19세기), (1권 지본목화 35.4cm×446.0cm)
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

- ① 니노몬(二ノ門)
- ② 문지기의 검사
- ③ 경비초소(番所)
- ④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(생선, 채소)
- ⑤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(닭)
- ⑥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(장작)
- ⑦ 일본인 상점 (장작)
- ⑧ 일본인 상점 (도자기)
- ⑨ 일본인 상점 (칠기)
- ⑩ 일본인 상점 (우산)
- ⑪ 일본인 상점 (종이)
- ⑫ 일본인 상점 (철물)
- ⑬ 일본인 상점 (전복)
- ⑭ 일본인 상점 (닭고기)
- ⑮ 일본인 상점 (채소)
- ⑯ 일본인 상점 (생선)
- ⑰ 일본인 상점 (두부)
- ⑱ 일본인 상점 (닭)
- ⑲ 구매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 (닭)
- ⑳ 다이몬(大門)



문감(감찰), 1839년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■당인주거지 광장에서의 거래도 (위 그림)

당인주거지의 입구인 다이몬(大門)부터 당인주거지 가장 안쪽에 있는 정원까지의 풍경이 그려진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림에는 광장에서 중국인과 일본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. 생선과 채소, 소금과 간장 등 상품별로 2명에서 6명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매일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.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그때마다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무역을 끝내고 귀국할 때 무역 매출에서 한번에 차감되었습니다.

■문감 (아래 그림)

1839년에 당인주거지의 관리가 발행한 당인주거지에 출입을 허용하는 문감(통행허가증). 당인주거지의 다이몬(大門)과 니노몬(二ノ門) 사이에는 광장이 있었으며, 1707년 이후에는 이 광장에 생선과 채소 등의 생필품과 칠기와 이마리야키 도자기 등을 파는 시장이 세워졌습니다. 이 문감은 이곳에서 장사를 허가받은 상인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이 밖에도 공사 등으로 당인주거지를 출입하는 장인들에게도 발행되었지만, 이들 역시 니노몬에서 당인주거지 내부로의 통행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.